

KDDX, 2년 만에 사업자 선정될까

(한국형 차기 구축함)

‘경쟁입찰 vs 상생안’ 결론 앞뒤

오는 4일 분과위원회 안전 상정
경쟁입찰, 유력안으로 꼽히지만
사업 일정 더 늦어질 가능성 커
상생안, 지연 최소화 대신 책임 논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2년째 표류 끝에 ‘경쟁입찰’과 ‘상생안(공동수행)’ 두가지 방식만을 놓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자 향후 20년 해군 전력 구조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만큼, 오는 4일 열릴 분과위원회의 판단에 업계·군·정치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안건을 상정한다. 방사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 KDDX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민간위원·정치권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이 배제되면서 선택지는 경쟁입찰과 상생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은 절차적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과 정치권에서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한화오션 역시 HD현대중공업의 보안별 점을 근거로 공정한 경쟁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다만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평가 및 검증 절차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미 2년 지연된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보안감점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인 상황이다.

상생안은 두 업체가 역할을 나눠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초기 방사청 내부에서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기술·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답답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부담이 큰 방식이다. 구축함 건조 특성상 시스템 통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둘러싼 양사의 입장 차이도 분과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자동으로 상세설계·건조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는 공정경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경쟁입찰이 유일한 공정한 해법이란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역시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체계 이해도와 기술 연속성이 확보돼 있다”며 사업 안정성과 일정 준수를 위해 단독 수행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두 안 모두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 속 이번 분과위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판단 권한이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로 넘어가게 된다.

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지연 우려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KDDX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DDX는 단순한 대형 사업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구조와 해군 전력 체계를 동시에 재편할 이정표”라며 “어떤 결론이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100분기 연속 흑자 이어가

‘합성고무’로 실적 차별화

금호석유화학

3분기 영업이익 612억… 61.1% ↑
전기차 타이어, 장갑원료 수요 꾸준
이익회복 지속… 내년 전망도 장밋빛

금호석유화학이 석유화학 업황 침체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다수의 석화 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것과 달리 금호석유화학은 고부가 합성고무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100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경쟁사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실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재확인했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1조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12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범용 기초유분 중심 기업들이 적자를 반복하는 가운데 솔루션스틸레부타디엔고무(SSBR), 니트릴부타디엔(NB) 라텍스 등의 품목에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로 합성고무 부문 매출은 632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 SSBR은 전기차용 프리미엄 타이어 핵심 소재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출 비중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맞춰 연말까지 여수 SSBR 설비를 기존 12만3000톤(t)에서 15만8000t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NB라텍스도 핵심 품목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는 내구성과 인장강도가 높아 의료용 장갑 원료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25%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중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2공장.

국산 라텍스 장갑 관세가 내년 최대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요 증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금호석유화학의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금호석유화학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3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BD와 스타이렌 모노머(SM)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합성고무 중심 사업의 이익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다.

반면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영업손실 1326억원을 기록했고, 한화솔루션은 같은 기간 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범용 기초제품 시장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석화사들이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공급과잉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고부가 합성고무 중심의 제품 비중을 키우며 업황 변동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며 “SSBR 증설과 NB라텍스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미국 전기로 제철소 모형 사진.

/현대제철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 건설 예정 전기로 제철소 모형 공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공개

현대제철은 오는 4~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5’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WHE 2025는 전 세계 수소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글로벌 수소 산업 행사다. 올해부터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가 통합돼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현대제철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구체적인 조감도와 수소환원제철로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공개한다. /유혜온 기자 dhahledhale@

삼성, 美서 초음파 진단기기 ‘R20’ 첫선

‘북미영상의학회 2025’ 참여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상 진단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인 차세대 영상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에는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5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R20’은 삼성이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영상학과 전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이다.

R20의 핵심 기술은 서드 하모닉이다. 기본 신호보다 세 배 높은 주파수를 활용해 기존 하모닉 대비 체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훨씬 선명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답러닝 기반 실시간 AI 보조 기능 라이브 리버어시스트와 라이브 브레스트어시스트가 R20에 탑재돼 간·유방 등의 주요 부위에서 관심 병변 영역을 실시간 탐지하고 시각화한다.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컨트롤 패널을 직관적으로 재배열하고 장비 이동성을 강화했으며, 굵기와 무게를 각각 50%, 66% 줄인 플렉스 케이블은 근육 사용량을 약 30% 감소시켜 의

료진의 피로도를 줄였다.

삼성의 X-ray는 AI 기반 저선량 구현을 핵심 가치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GM85의 애너토미 클리핑 체크(ACC)와 GC85A Vision+의 프로토콜 체크는 촬영 부위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촬영 영역을 실시간 검증해 재촬영 가능성을 낮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저선량 촬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체험존에 전시된 LLD(Long Length Detector) 디텍터 ‘L8643-AWV’는 넓거나 긴 신체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해 검사 속도를 높이고 촬영 횟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한다.

삼성은 저선량 조건에서도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미국 시장에 출시된 삼성의 클리어 NR(Clear Noise Reduction)은 AI 기반 노이즈 저감 기술로 에스뷰(S-Vue™) 영상처리 엔진에 AI를 적용해 영상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규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는 “삼성은 환자 특성에 따른 화질 편차 등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제 해결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韓 수소산업 경쟁력 알린다

오늘부터 ‘수소위원회 CEO 서밋’
향후 5년간 핵심 과제 추진 논의

현대자동차그룹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수소위원회 CEO 서밋(Summit)’을 통해 한국의 수소 산업 경쟁력 알리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수소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인 포부를 가진 기업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수소위원회에는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공동 의장사로서 전 세계 수소 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회원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소위원회 CEO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CEO 서밋에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약 100개 회원사의 CEO와 고위 임원진 및 한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CEO 서밋에서는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자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먼저 공식 의전 차량으로 디올 뉴 넥소 50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등 총 56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행사 전 구간 모든 이동 수단을 수소전기차로 운영한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디올 뉴 넥소 차량 시승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넥소 시승 코스에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켜 참석자들이 한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 시장 세션’을 특별 개최해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업계의 수소 기술에 대한 혁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공동의 의지를 강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